

교황 프란치스코

스페셜 에디션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교황 프란치스코 선종 1936~2025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Pater Sancte, sic transit gloria mundi”(“교황 성하, 세상의 영광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말은 교황 즉위식에서 예절지기가 장대 끝에 달린 삼 조각을 태우며 라틴어로 세 번 반복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교황 즉위식”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부활 팔일 축제 월요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최고 대사제로 12년 동안 헌신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격동의 시간 속에서 참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전 세계 대다수 언론이 이를 주목하고 환호하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킨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대중적 인기라는 유혹의 바다를 헤쳐나가심은 물론 수많은 논쟁의 풍랑도 현명하게 이겨내시며, 신실한 믿는 이요 성실한 목자로서의 소명과 특성에 가장 일치하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헤일 수 없는 교황님의 수고한 삶 끝에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느님의 더 큰 영광, 그리고 인류의 영혼 구원이라는 최고법칙을 위해 그분께서 이루신 선한 일들 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알았던 우리는 이러한 조명 아래에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삶의 이러한 측면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과 프란치스코 교황님 사이에는 분명하고 명백한 친밀감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의 사목 원조 활동과 보편 교회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드러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언제나 우리 ACN을 높이 평가하시고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님의 ACN에 대한 애정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는 우리 ACN이 매년 주관하는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한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을 주일 삼종기도에서 열정적으로 홍보해주셨던 교황님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놓인 고통받는 교회들을 위한 긴급 지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ACN의 함께 하였던 순간들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황님께서 박해로 고통받는 교회의 사목적 필요와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만의 고유한 카리스마에 더욱 집중하도록 우리를 격려해주셨기 때문에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인 ACN의 수호자라고 느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모든 축복을 기도로 청하며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그분을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맡깁니다.

ACN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Maurizio Kard. Piacenza



놀리움을 기득 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

2013년 아르헨티나의 추기경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전 세계는 놀라움과 함께 기대를 품었다. 그분은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아메리카 출신이요, 첫 번째 예수회 출신이며,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한 첫 교황으로 놀라움을 기득 품은 분이였다. 이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에 굉장한 열정을 지니셨으며 사물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는 틀에 박히지 않는 그야말로 파격적이셨던 분이였다.

방문지의 종교 간 갈등과 치안의 불안을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내전 중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순방을 위해 낙하산을 타고서라도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셨던 때보다 더 전형적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을 묘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분은 모든 이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방기의 주교좌 성당에서 자비의 회년 성문을 여시며 그곳을 ‘세상의 영적인 수도’로 선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럽에서 태어나지 않은 최초의 교황



1



2



3



4

1. ACN의 지원으로 발행 빛 분배되는 교리서 DOCAT을 청년들과 함께 보며 기뻐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2. 몽골에서 종교 간 회의(2023년 9월 3일)
3. 이라크 우르에서 무슬림과 유대인 지도자와의 만남(2021년 6월 3일)
4.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장애 아동을 축복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이자, 사도좌에 앉은 첫 번째 예수회의 사제이며, 생존한 전임 교황을 찾았던 최초이자 유일한 교황이었다. 게다가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전에 가톨릭교회의 수장이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주교를 만난 적이 없었다. 1000년 만에 이뤄진 2016년 쿠바에서의 이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전임 교황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 이루어진 셈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2021년 3월 이라크 사도 순방 역시 그 의미가 크다. 교황이 이라크를 방문한 것이 역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ACN의 프로젝트 본부장이자 현 수석대표인 레지나 린치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역사적인 이라크 방문에 동행했다. 2014년 다에시(IS,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의해 수 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다가 ACN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모술과 카라코시 등을 방문한 것은 감격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재위 12년 동안 전 세계,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은 물론 우크라이나(2022년 2월)까지 전쟁과 폭력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와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전쟁들과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권력에 대한 갈망을 멈추세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제발



9

멈추세요.” 교황은 이처럼 세계 곳곳의 권력자들의 양심에 호소함은 물론 일반 신자들에게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대한 전구를 간곡히 요청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별히 2022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하여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분은 심지어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직접 가서 평화를 호소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셨다. 2022년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전 세계,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봉헌했던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 재위 기간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2025년 회년을 지내며 맞았던 주님 부활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병환으로 쇠약해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향한 사도좌 축복 ‘우르비 엿 오르비’(Urbi et Orbi, ‘로마와 온 세상을 향해’)를 주셨다. 그분은 교황 강복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어린 양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기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중략)… 우리도 끝없는 생명에 동참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활 팔일 축제 월요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주님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그분께 허락하신 아버지 하느님 품에 안기셨다.

5.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보코하람(Boko Haram)의 희생자들을 돌본 나이지리아의 피델리스 신부를 격려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6. 어린이를 안고 있는 교황
7.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와의 만남(2016년 12월 2일)
8.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봉헌하는 프란치스코 교황(2022년 3월 25일)
9.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군중들과의 감동적인 만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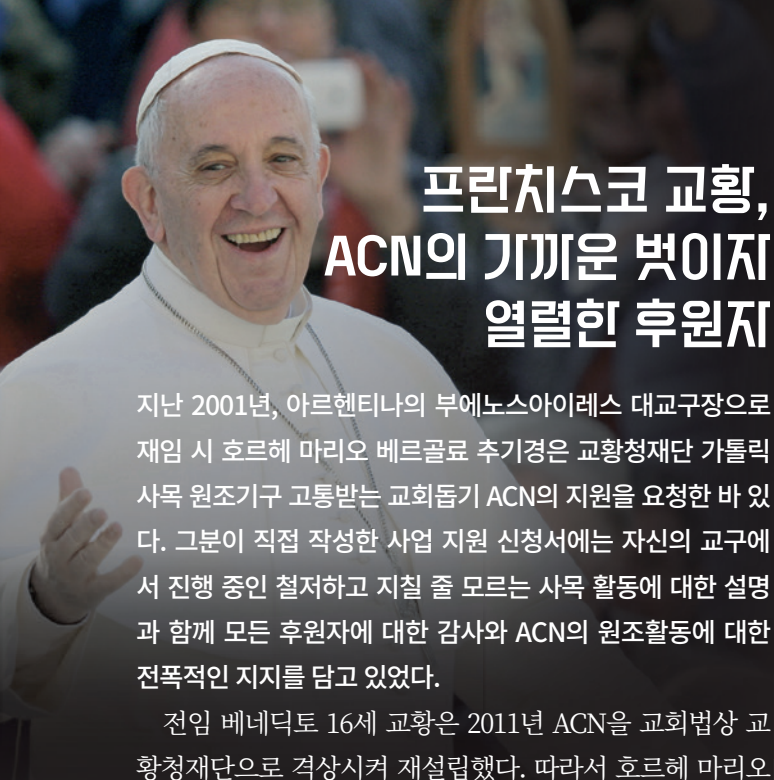


8



6





프란치스코 교황, ACN의 가까운 벗이자 열렬한 후원자

지난 2001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으로 재임 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로 추기경은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분이 직접 작성한 사업 지원 신청서에는 자신의 교구에서 진행 중인 철거하고 지칠 줄 모르는 사목 활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모든 후원자에 대한 감사와 ACN의 원조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담고 있었다.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2011년 ACN을 교회법상 교황청재단으로 격상시켜 재설립했다. 따라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로 추기경, 다시 말해서 2013년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도좌 수장으로서 자신의 직분으로 ACN에서도 최상의 직분을 지니시게 되었다. 그분은 교황직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후, 일반 알현 중에 ACN과 그 후원자들에게 다음의 말과 함께 축복을 전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전 세계에서, 특별히 영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겪으며 차별과 박해의 시련에 직면한 교회를 돕는 사명에 임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활동에 더욱 풍성한 결실을 거두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순히 격려의 말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ACN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 그분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선물한 특별한 신형 모델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경매에 부쳐 수익금을 여러 원조기관에 기부했다. 특별히 수익금의 3분의 1을 이라크의 니네베 평원의 그리스도인 마을 재건을 위해

ACN에 기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였다. 바로 이 ‘자비의 해’에 응답하여 ACN은 “행동하는 자비를 온 세상에” 캠페인을 주관 및 진행하였고, 첫 기부자는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었다.

특히 ACN이 시리아의 평화와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을 위해 펼친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기도 캠페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19년에 시작된 이 캠페인은 오랜 내전으로 상처 입은 시리아 교회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교황은 시리아의 크고 작은 다양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함께 내전 중에 희생되거나 납치된 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ACN이 주도하는 사목 활동과 교회 일치를 위해 6,000개의 묵주와 시리아인들의 위로자이신 고통의 성모 마리아 이콘을 축복했다.

그리고 ACN이 매년 주관하는 세계 일치와 평화를 위한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에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ACN이 펼치는 다른 캠페인에 가톨릭 신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우리는 ACN의 가까운 벗이자 위대한 후원자이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며, 이제 하느님 품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시도록 기도한다. 또한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ACN이 펼치는 고통받는 교회 돕기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ACN의 시리아를 위한 기도 캠페인에서 성모 마리아 이콘을 축복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2. ACN 본부 대표단과 함께 한 프란치스코 교황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이 주셨던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이 박해받거나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지 이스라엘-팔레스티나의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거의 매일 현지 교구(예루살렘 가톨릭교회 라틴 총대주교 피에르바티스타 피자발라 추기경) 전화하며 희망을 주려 애쓰시던 교황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2023년 10월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자지구의 성가정 가톨릭 성당으로 피신해온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교황이 가까이 있어 위로받았고, 어린이들은 친절한 ‘할아버지’의 전화를 매일 기다렸습니다.

저는 2021년 3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라크 사도 순방에 동행하면서 그분이야말로 착한 목자로서 이라크의 어린 양떼를 돌보고 걱정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니네베 평

원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요 도시인 카라코시에서 다에시(IS,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침공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하 사바 압달라가 떠오릅니다. 가톨릭 신자인 그녀의 증언에 감동하셨던 교황님의 모습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녀의 증언을 통해 용서, 특히 원수에 대한 용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원수에 대한 용서야말로 바로 순수하고 참된 복음입니다.”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이라크 방문 비행기 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리워할 것입니다.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Regina Lynch